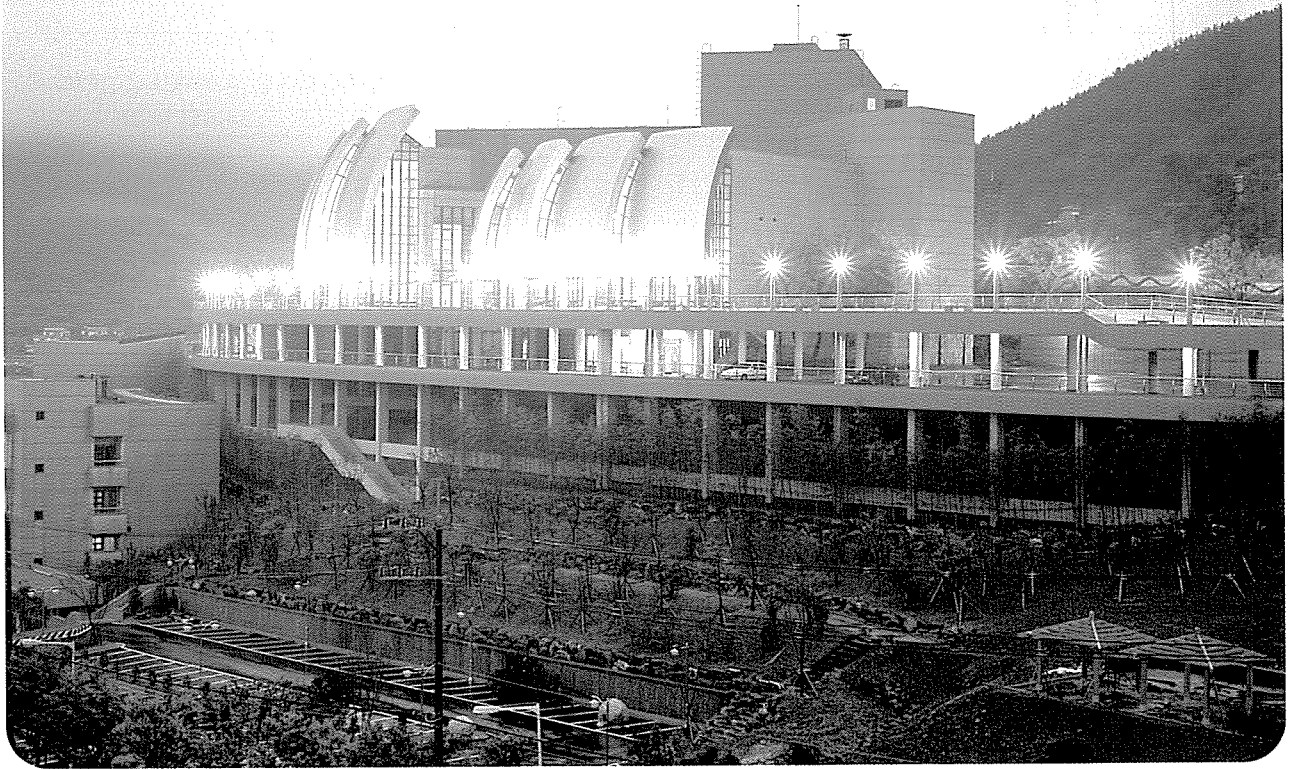


2004년 건축가협회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주역 한진중공업



거제시 장승포동 일대 7,789평에 총사업비 620억 원 연면적 6,124평의 규모의 거제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었다. 2003년 8월, 5년여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된 이 문화예술회관은 대극장(1,217석), 소극장(436석), 전시장, 레포즈 및 유스호스텔 시설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의 완공으로 거제시민은 이제 한층 성숙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 이곳은 노자산 줄기로 장승포항과 남쪽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장승포항의 정면에

위치해 예로부터 '장승포의 이마' 라고 불리는 곳이다.

건물은 장승포항을 내려다보며 돛단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형상으로, 이러한 조형적 요소는 바다의 보고이자 해양산업의 메카인 거제도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거제시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손색이 없다. 경사지인 지형적 환경을 이용한 단계적인 건물과 외부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형의 배치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바다와 연계된 자연적인 형상의 문화예술회

관은 '96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주)아도무종합건축사의 설계를 (주)한진중공업이 시공한 것으로 '03년 경남도 건축대상 수상, '04년 한국건축가협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시공사 한진중공업 김기영 현장소장은 거제시의 문화수준 향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설계에 부여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책임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합리적인 원가관리에도 완벽을 기했다고 말한다.

지역민의 문화공간 건립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독립된 건물이 아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 되도록 시공하였으며 특히 인접한 주택 및 건물의 훼손, 도로 붕괴 등 예견되는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가시설 및 법면보호 시설을 영구 ANCHOR에 의한 무진동 SRS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해안 경사형태의 도로 사면 절개 공법을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 개선 변경추진 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였다.

이로 인해 거제시로부터 완벽시공에 따른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장을 수상(2000년) 하였으며, 본사 현장평가에서도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었다.

김기영 소장은 거제문화예술회관 공사수행에 있어 보다 실용적이고 완벽한 문화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소장은 물론 공사 담당 직원들이 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토록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하여 미리 공사에 반영하는 등 발주처가 요구하기 이전에 보다 나은 건축물을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밀·안전시공 함으로서 국내 최고의 아름답고 실용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시킨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건설 현장

'97년 12월 건립공사 현장개설 후 김기영 현장소장은 지역민이 함께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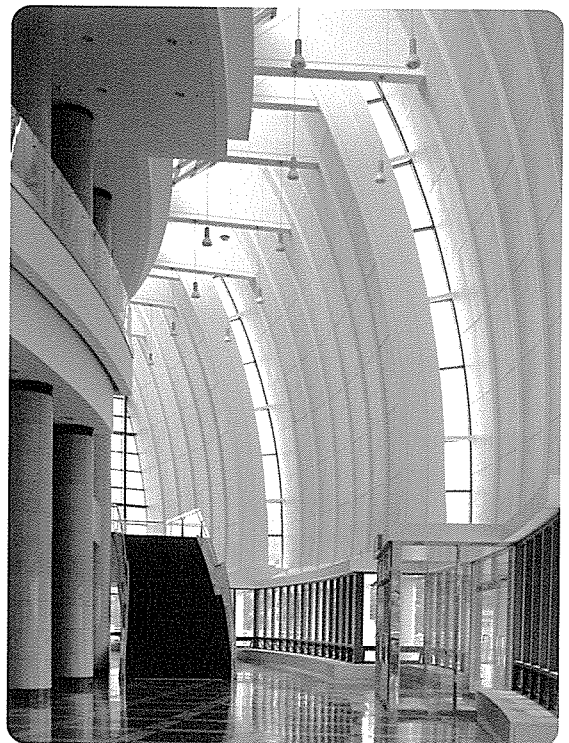
청결하고 쾌적한 현장을 위해 주변 도로 정비는 물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배수로를 복개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예방 하였으며, 바다와 인접한 현장의 특성상 바다로 유입되는 폐자재, 오수의 처리를 완벽히 하여 지역에 헌신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장 또한 하나의 생활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지역주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로서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소장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행사지원은 물론 노인 회관, 보육시설 기숙사 시설개선 등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사업기간 내내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현장이 되도록 관리하였다.

전 직원의 '안전 관리자 제도' 운영

'90년 초부터 시행해온 (주)한진중공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은 각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을 바탕



으로 오늘날 ‘혁신적인 재해율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김기영 소장은 이러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현장소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안전관리자인 안전조직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일일 안전당직자 운영, 직원 실적이고 반영을 통한 개개인의 동기부여 및 관심을 고취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하여 초일류 기업 인증서 취득에 기여하고, 현장 무재해 3배 달성(2003년)을 이룩하였다. 또한 한진중공업에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KOSHA 18001의 금년도 인증 취득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한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몸소 실천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직원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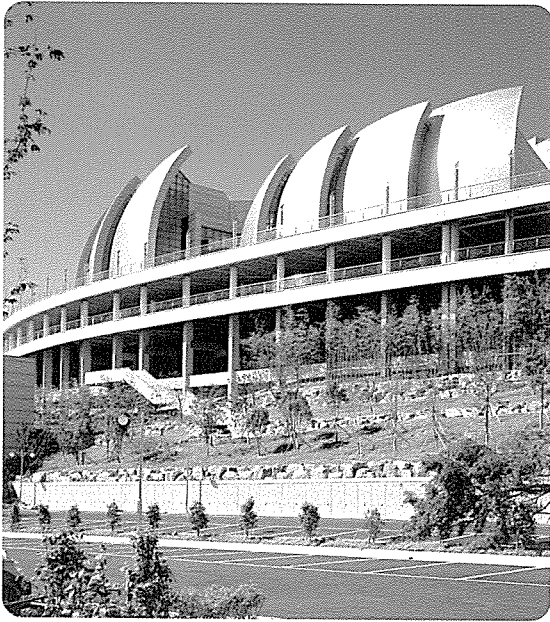
“개인의 발전이 곧 기업 발전의 원동력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장업무가 힘들고 개인시간을 보장 받기 어려울지라도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이로 인해 회사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현장의 무재해는 내손으로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소장이하 전 직원이 안전 관리자가 되어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재해 현장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예술로 승화시킨 건설인!

김기영 소장의 경력을 보면 화려하기 보다는 한 분야에서 묵묵히 성장해온 건설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어김없이 아침 6시40분이면 현장에 출근하여 아침체조 대열에 참가하고 있다. 아침체조가 하루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김기영 소장은 자체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85년 현장기사로 입사해 20여 년간 한진중공업과 동고동락하며 회사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현장의 기술 여건에 대처하고 때로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94년 인하대학원에서 건설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해 건설관리에 대한 경험축적은 물론 이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으며, '97년에 건축시공기술

사를 취득으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기술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2000년 2월 건축 사업관리 전문가 CMP자격을 취득하고 APEC엔지니어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04년 12월 부경대학원에서 건설관리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김기영 소장의 탁월한 근성과 변함없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2003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최고 명예인 '한진맨상'을 수상하여 개인적으로 더욱 분발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는 김기영 소장은 오늘도 현장의 품질, 환경, 공정 및 원가관리를 완벽히 수행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은 회사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김기영 소장 그는 한진중공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한 한진맨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실력파



김기영 소장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관리공학 박사

김기영 현장소장(부장)은 1985년 한진중공업(구 한일개발)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정통의 “한진맨”이다.

정부 및 민간발주의 대형 PROJECT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한전 기술연구소(분당) 현장소장('94), 거제문화예술회관 현장소장('03)을 거쳐 현재 해군 3함대 작전기지 건설사업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문지식 습득과 미래 건설 산업을 위해 인하대학원에서 건설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어 CMP자격 및 APEC엔지니어 인증을 취득하였고, 최근에는 무한경쟁의 건설사업 및 현장관리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경 대학원에서 건설관리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특히 PROJECT 수행 중 산업안전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2001년), 현장 무재해 3배 달성 보증서 수령(2002년) 등 안전관리에 힘썼고, 회사 이미지 대변과 이익창출 및 경영실적을 높인 공로로 한진맨상을 수상(2003년)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